

둘러 있고 그 밑에는斜線을 左右로 交叉시킨 線刻을 나타내었다. 壺肩以下 壺中腹以上の 間隔에는 二列橫으로 上段에 馬五匹 下段에 馬四匹 牛二頭 鹿一頭 上下合計 十二頭의 獸文을 亦是 線刻으로 表現하되 머리를 向해서 右側으로 두었다. 馬匹의 線刻中에는 尾毛 三、四線을 左側으로 내려고 다시 腰上에도 三、四線이 上向하여 그어져 있음이 特殊하며 牛畫는 頭上 兩角과 尾一條를 모두 上向하여 그려 있고 足部를 鷄足같이 三指로 表現하였다. 鹿畫는 兩角에 各各 가지 (分枝)가 돋았고 足部는 脚線으로만 그쳤다. 臺座에는 上下層段을 區分하여 方孔이 等間隔

으로 上下各六孔이 잇바뀌서 풀려졌다. 貴重한 動物文畫壺의 新例로서 保存되어야 할 것이다. 總高 四二·〇cm 口頸高 一一·五cm 同徑 一七·〇cm 腹部高 三六·五cm 同徑 三四·九cm 臺高 五·五cm 徑 二五·〇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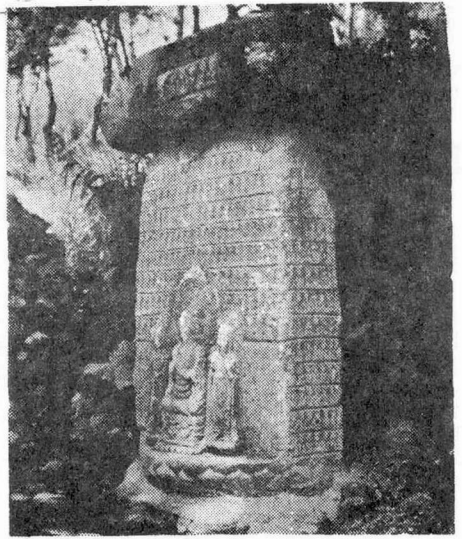
燕岐의 三尊千佛 碑像

秦 弘 燮

鳥致院邑에서 徒步로 二、三十分되는 距離에 瑞光庵이라는 庵子가 있고 그 옆길가에 稀貴한 碑像 一座가 露天에 安置되어 있다. 이 碑像의 原所在地는 알 수 없으나 瑞光庵主의 말을 들으면 鳥致院邑內 도랑에 묻혀 있던 것을 五、六年前에 이 곳으로 옮겨온 것이라 한다. 아마도 日人의 舊藏인 듯하다고 하니 隣近의 어느 寺址에서 얻어다 두었다가 解放後에 버리고 간 듯하다.

全高 約 九一cm 身幅은 下部에서 五〇cm 上部에서 四七·五cm 厚는 下部에서 十五cm 上部에서 十四·五cm의 黑灰色蠟石製의 이 碑像은 臺座 蓋石이 具存하고 있다. 臺座는 單瓣蓮花를 正面과 兩側面에 彫刻하였고 前面은 若干 앞으로 弧線을 그리며 튀어나와 碑身에 彫刻된 三尊像을 받게 되어 있다. 碑身에는 前面上部 中央에 三尊像이 뚜렷이 浮刻되었는데 그 出이 三一·五cm나 된다. 本尊은 方座上的의 坐像으로 像高 二一·五cm이다. 衣文과 胸部 兩手와 顔面의 磨損이 甚하나 右足을 앞으로 한 跏趺座를 結한 위에 通肩이며 左手는 臍前에, 右手는 施無畏의 印을 結하였다. 顔面은 긴 편이며 그 뒤에 若干 內彎된 寶珠形 光背가 있다. 中央에 單葉蓮花를 두고 周緣에 火焰文이 있으며 그 사이에 連珠文이 있다. 臺座는 거의 全部 衣褶으로 덮혀 있으며 膝下에 蓮花紋一帶가 보이며 臺下部에 衣端 사이로 眼象이 보인다.

左右의 兩脇侍菩薩은 身高 共히 一一·五cm의 圓形 蓮臺上的의 立像이다. 亦是 磨損이 甚하기는 하나 端正한 모습을 能히 짐작할 수 있다.



石像은 右手에 寶珠를 左手에 花枝를 잡고 있으며 左像亦 두 손에 무엇인지 알 수 없다. 上體는 裸形이며 두 팔을 거켜 밀으므로 흘러내린 天衣는 앞에서 X形으로 交替되었다. 本尊 左右로 脇侍像과의 사이에 蓮莖이 솟고 끝

에는 蓮蕾가 달려 있다.
이 三尊像 左右에는 各 四行씩의 碑文이 있는데 高二·五cm 行間約 같다.
二·五cm로 縱線으로 行間을 區劃하였다. 爲先判讀한 碑文은 다음과 같다.

歲在癸酉年四月十五日
彌及諸佛菩薩像造
右記是者爲國王大臣及七世父母法界衆生故敬 (以上 向右侧)

造之 香徒名 弥次乃圓

牟氏香 仁次 峇

宜 峇 智 不 峇 貳 使 舍

峇 二百五十四 (以上 向左侧)

前面의 三尊像과 碑文을 除外한 全面과 左右 側面 背面에는 蓮座上에 小如來坐像이 數百軀 陽刻되었다. 前面은 九段에 各段 二十二佛이며 兩側面은 十四段에 各段 七佛이고 背面은 十六段에 各段 二十一佛이다.

多少磨損은 되었으나 優雅한 모습을 알아볼 수 있다.
蓋石은 上下二段의 長方形이고 碑身에 맞도록 밑에 홈이 파져 있고 下段周圍로 帳幕이 늘어졌다. 長廣은 下層이 三三×六四cm이며 上層이 二一×四六cm에 高가 一八·五cm이다. 右半이 破損된 것은 碑身右下端과 臺座右端의 缺落과 더불어 이 碑像의 홈이라 하겠다. 頂部에는 아무 裝置도 없으며 上下二段의 四面에 各一段과 屋裏에 二段의 小佛像이 碑身에서와 같은 手法로 陽刻되었다.

如斯한 碑像은 碑岩寺所藏 癸酉銘 全氏 阿彌陀佛 三尊石像 ①에서 보았을뿐 그 보다도 크며 四面에 寸隙을 남기지 않고 小佛像을 配置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보는 稀貴한 일이다. 이 碑像에서 特히 注目되는 點은 碑文에 보이는 「癸酉年」의 年代이니 碑岩寺藏 癸酉年 石像과 그 彫刻 手法이 共通되는 點으로 보아 同代의 造成으로 생각되며 新羅統一 直後 百濟遺民의 솜씨로 推測된다. 다음은 「眞牟氏」의 姓氏이니 우리나라 記錄에서 처음 나타나는 바로 百濟八大姓의 하나인 「眞」氏는 實은 日本側 記錄 ②에도 보이는 眞牟(慕)氏라는 것을 實物로서 보여준 매우 貴重한 金石이라 하겠다.

註

① 本誌 第一卷 第四號 黃壽永 「碑岩寺所藏」의 新羅銘石像

② 李弘植 「百濟人名考」 (서울大學校論文集) 第一輯 一九五四年三月 (追記) 本碑像은 直後 國寶로서 假指定되었다.

善山出土의 金銅冠

黃 壽 永

一九六〇年十一月 大邱에서 上京한 金銅冠一個를 調査한 바 있었다. 出土地는 慶北 善山郡 海平面 洛山里 所在 新羅石塔 後山의 古墳이라고 하는 바 俗稱 八萬大將軍基라고 일컫는 古塚에서 一九五七, 八年頃 夏季에 發見되었다고 한다. 一括遺物로서는 長劍二銅鐔 若干 土器(鈴形其他)等이라고 하는 바 모두 散逸되었고 그中 劍類는 서울 李某氏의 所藏